

호랑이 순위 싸움, 또 다른 적 '부상'

이강인도 인종차별 반대

발렌시아 무릎 꿇기 퍼포먼스 동참



KIA 타이거즈 김선빈이 왼쪽 허벅지 통증으로 10일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사진은 지난 3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사구에 맞은 뒤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김선빈, KT전 결승타 치고 2루 베이스 돌다 허벅지 통증에 교체
근육 파열 없이 염증 소견... 본격 순위전서 주축선수 이탈 치명적
선수들 잦은 부상에 비상령... 무더위 속 '부상 관리' 화두로
이적생 류지혁 1군 등록... 좌완 김기훈, 팔꿈치 통증 털고 합류

부상과의 싸움이 시작됐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9일 KT 위즈와의 원정경기에서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다.
1-1로 맞선 5회초 2사 2-3루에서 중전 적시타를 기록한 김선빈이 1루를 돌아 2루 베이스로 향하는 도중에 다리를 절뚝이며 벤치에 사인을 보낸 것이다.
좌측 햄스트링(허벅지 뒤쪽 근육) 통증을 호소한 김선빈은 바로 교체됐고,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받았다.
내야 고인 속에 트레이드 강수까지 둔 KIA 입장

에서 김선빈의 부상은 치명적이다.
올 시즌 김선빈은 30경기에 나와 124타수 36안타 타율 0.340, 14타점의 활약을 하고 있다. 2루로 자리를 옮긴 수비에서도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수에서 KIA의 핵심 선수다.
불행 중 다행으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김선빈은 검진 결과 근육 및 근막 손상 없이 '좌측 햄스트링 근육이 부어있는 경미한 대퇴이두근 염좌'라는 소견을 받았다. 우려했던 근육 파열은 피했지만 김선빈은 일단 10일 부상자 명단에 등재됐다.

대신 종아리 통증으로 등록을 미뤘던 '이적생' 류지혁이 엔트리에 등록됐다.
김선빈은 차분하게 관리를 받을 예정이지만 재발이 잦은 부위라 당장 복귀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본격적인 순위 싸움 속에 날까지 더워지면서 '부상 관리'는 KIA는 물론 구단들의 또 다른 전력 이 되고 있다.
올 시즌 크고 작은 부상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IA도 최근 부상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가장 먼저 5월 22일 좌완 이준영이 왼 허벅지 부상으로 엔트리에 제외됐고, 내야에서 알토날 같은 활약을 이어온 베테랑 나주환도 허벅지 통증으로 지난 2일 부상자 명단에 등재됐다가 9일 복귀했다.
김호령도 윌리엄스 감독의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지난 7일 두산베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김호령은 1-0으로 앞선 6회초 선두타자로 나와 좌완간으로 공을 보냈다. 빠른 스피드로 1루에 이어 2루를

지난 김호령은 3루까지 내달렸고, 슬라이딩 끝에 세이프 선언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친 김호령은 잠시 치료를 받았다. 이후 김호령은 득점과 6회말 수비까지 책임졌지만, 7회초 공격에서 교체됐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김호령은 9일 경기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기도 했다.
퓨처스리그에서도 부상 소식이 들려왔다.
포수 이정훈이 지난 5일 삼성과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주루 도중 무릎 뒤쪽을 다쳤다. 지난해 상무에서 전역한 이정훈은 올 시즌 뜨거운 타격으로 주목받았지만 부상으로 한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다.
필승조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좌완 임기준도 통증이 재발하는 등 재할이 더디 이뤄지고 있다.
대신 팔꿈치 통증으로 시즌 준비가 늦어졌던 좌완 김기훈이 퓨처스리그에서 점검을 끝내고 1군에 합류하면서 시즌 출발을 앞두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뛰는 이강인(발렌시아)이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 반대 퍼포먼스에 동참했다.
발렌시아는 9일(현지시간) 구단 트위터 계정에 선수들이 훈련장에서 오른쪽 무릎을 꿇고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렸다.
'무릎 꿇기'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미국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관련해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저항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다.
구단은 사진과 함께 "발렌시아는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 행위와 불명등에 반대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문구와 다양한 색상의 '손바닥 이모티콘'을 게시했다.
발렌시아의 '젊은파' 이강인도 동료 선수들과 함께 포즈를 취해 인종차별 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연합뉴스

리그앙, 22팀 뛰나

시즌 조기 종료에 강등위기 팀 소송
법원 '아미앵·툴루즈 재검토하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프랑스 프로축구가 시즌을 조기 종료하면서 2부리그 강등에 직면했던 리그앙(1부리그) 아미앵과 툴루즈에 생존 기회가 생겼다.
프랑스 일간 레퀴프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은 9일(현지시간) 두 팀의 강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프랑스프로축구연맹(LFP)에 2020-2021시즌 구성을 재검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리그앙이 10경기기량을 남긴 채 4월 조기 종료한 이후 강등과 유럽축구연맹(Uefa) 클럽 대항전 진출팀 결정을 놓고 불거진 이견은 법정 공방까지 이어졌다.
20개 팀 중 19~20위로 강등된 아미앵과 툴루즈, 7위로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권에 도전할 기회를 잃은 리옹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19위인 아미앵의 경우 18위로 강등을 면한 님과의 승점차가 4에 불과해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파리행정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세 팀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아미앵과 툴루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그앙이 참여 팀을 20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이달 30일 만료되고, 새로운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팀의 강등을 보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음 시즌 리그앙은 아미앵과 툴루즈를 포함한 2019-2020시즌 리그앙 20개 팀과 2부에서 승격된 두 팀을 포함한 22팀 체제로 진행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자르브뤼켄 돌풍 '소멸'

獨 컵대회 준결승 레버쿠젠에 0-3

'독일판 칼레의 기적'을 일으킨 4부리그 팀 FC 자르브뤼켄의 돌풍이 독일축구협회(DFB) 컵대회 준결승에서 끝났다.
자르브뤼켄은 10일 열린 2019-2020시즌 DFB-포칼 준결승 바이어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0-3으로 졌다.
자르브뤼켄은 독일 4부리그에 해당하는 레기오 날리가 쾰른베스트 소속 팀이다. 반면 레버쿠젠은 최상위리그인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팀이다.
자르브뤼켄은 77회째를 맞은 DFB-포칼 역사상 4부리그 팀으로는 처음으로 준결승까지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
자르브뤼켄의 DFB-포칼 4강행은 '칼레의 기적'에 비견됐다.
프랑스 4부리그 팀이었던 칼레는 1999-2000시즌 프랑스 FA컵에서 상위리그 팀을 잇달아 꺾고 결승까지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고, 비록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이후 '하위리그 반란'의 대명사가 됐다.
그러나 자르브뤼켄은 레버쿠젠까지 넘어서는 못했다. 레버쿠젠은 전반 11분 무사 디아비의 선제골에 이어 전반 19분 루카스 알라리오의 추가골로 한 발짝 더 다가갔다. 후반 13분에는 카림 벨라라비의 쐐기 골이 나왔다. 케렐 데미르바이는 세 골을 모두 도왔다.
꿈같은 시즌을 마친 자르브뤼켄은 다음 시즌 3부리그로 복귀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시즌이 그대로 종료돼 이번 시즌 리그 1위를 달리던 자르브뤼켄의 승격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여름 "200번째 출장 경기 반드시 승리"

'K리그1 6R' 광주 FC 14일 부산과 홈경기... 고향팀서 원클럽맨 기록 '의미'

광주FC의 '주장' 여름이 특별한 날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
여름은 10일 오후 훈련이 진행되기에 앞서 잠시 광주 CGI센터를 찾았다. 카메라 앞에서 밝은 표정으로 포즈를 취한 여름의 영상은 오는 14일 공개될 예정이다.
2020년 6월 14일은 여름에게 특별한 날이다.
일단 이날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는 올 시즌 광주의 성적을 가능케할 수 있는 중요한 승부처다. 상대가 바로 지난해 K리그2에서 승격 전장을 벌였던 부산 아이파크다.
광주가 K리그2 우승팀으로 먼저 승격을 이뤘고, 부산도 승강플레이오프 끝에 승격 티켓을 획득하면서 두 팀이 다시 K리그1에서 만나게 됐다. 이제는 생존을 위한 전쟁을 벌여야 하는 라이벌의 시즌 첫 대결이다.
개인에게도 많은 의미가 담긴 경기다.
이날 여름이 그라운드를 밟게 되면 200경기 출장 기록이 완성된다. 지난 2012년 고향팀 광주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 '원클럽맨'으로 이루게 되는 기록이라 더 의미가 있다.
여름은 2017년과 2018년에 군복무를 위해 잠시 상무 유니폼을 입었지만 줄곧 광주의 노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지난해 팀의 부주장으로 K리그2 우승을 이끈 여름은 올 시즌에는 '주장' 완장을 차고 K리그 무대를 누비고 있다. 광주 그리고 K리그1에서 맞는 200경기라 여름의 마음도 남다르다.
여름은 "정말 재미있게 활약했는데 내 그릇보다 과한 사랑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K리그 100경기도 쉽지 않고 200경기도 쉽지 않은데 한 팀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동안 많은 감독님 밑에서 뛰었는데 저를 믿고 기회를 주신 감독님들께 감사하다. 지금도 박진섭 감독님이 믿고 기회를 주시는 건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팬들이 변함없이 좋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더 유명하게 광주를 빛내야 했는데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팬들에 대한 마음을 밝혔다.
200경기 날 그라운드엔 사실상 '전쟁터'다. 여름은 승리와 200경기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각오다.
여름은 "우리 선수들 말 안 해도 다 알 것이다. 전쟁에 가까운 경기가 될 것이다. 지기 싫어서 마음가짐도 더 굳게 할 것이다. 서로 뛰어넘지 않으면 떨어지는 것이니까 두 팀 모두 단단히 준비할 것이다"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겨내야 K리그1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꼭 승리한 뒤 200경기 소감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

